

85th

학생의 날 기념 신문

학생의 날 2~3
11월 3일, 학생의 날?

학생인권 4~6
학생인권, 불편한 진실?

연애 7
나에게 연애란 네모다

학생자치 8~9
자치 찾아 삼만리

문화 10
게임은 짱이다

건강 11
당신에게 필요한 건강 체크리스트

교육 12~13
경쟁교육의 악순환

사회.정치 14~15
선거권, 몇살로 낮춰야?

어느덧 85번째 학생의날.
지금은 '학생행일운동기념일'이라는 법적 명칭으로 불리며 정부의 기념식까지 열립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축하에 갇혀버린 학생의날은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85년 전 학생들이 요구한 교육/사회의 변화는 2013년인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짜 학생의날은 기념사, 꽃다발만 있는 형식적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학생들의 참여와 저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5돌 학생의 날 우리의 삶은 바뀌었나?

11월 3일, 학생의 날?



1929년 11월3일,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과 무시에 분노한 광주지역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독립, 일본의 식민지교육 반대, 학생들의 자치권과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의 저항은 광주를 시작으로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전국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학생들의 저항은 광복이후에도 이어집니다. 학생들은 11월3일 학생들의 저항정신을 이어나가며 독재정권에 반대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학생들의 저항에 부담을 느낀 독재정권은 공식기념일이었던 11월3일 '학생의 날'을 폐지했지만, 학생들의 저항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독재정권이 물러난 뒤 '학생의 날'은 다시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학생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사회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89년 교사들이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정부는 교사들을 대량해고하였고, 이에 분노한 학생들은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학교점거, 시험거부(백지운동), 단식 등을 하며 저항합니다.



'학생의 날'의 시작이 되었던 학생 항일독립운동으로부터 어느덧 84년, 학생들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가 참여하는 이 교육은 과연 나아졌나요? 2013년 학생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더 나은 학교,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생들의 저항정신은 오늘까지도 in!

학생대중이여 꺾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에서!

1. 검거자를 우리의 힘으로 탈환하라
2. 검속자를 즉시 석방하라
3. 교내경찰권침입에 절대 반대하라
4. 교우회 자치권을 확립하라
5. 교내외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6. 직원의회에 생도의 대표를 참가시켜라
7. 조선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8. 식민지노예교육을 철폐하라
9.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
10. 전국 학생대중자회를 개편하라

학생대중이여 꺾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에서!
 검거자를 우리의 힘으로 탈환하라 / 검속자를 즉시 석방하라 / 교내경찰권침입에 절대 반대하라 / 교우회 자치권을 확립하라 / 교내외에서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 직원의회에 생도의 대표를 참가시켜라 / 조선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 식민지노예교육을 철폐하라 /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 / 전국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라
 1929.11.11. 오 래 일(吳快一) 광주학생항일독립운동 당시 배포된 학생들의 10대 요구사항

2013 학생의 날에는?

경기	전북 군산	경남 김해	부산
2013 학생의 날, 학생들은 이렇게 외친다 (경기학생들의 요구엽서 모으기) asunaro.or.kr/post1103	2013 군산 학생의 날 행사 일시 : 2013. 11. 2(토) 08:30 ~ 17:00 장소 : 군산시 문화초등학교 운동장 프로그램 : 중학교동아리축구한마당 학생인권마당, 골목길사진전	제6회 김해청소년 영화제 일시 : 2013. 11. 2(토) 10:00 ~ 장소 : 김해 미디어전당 영상미디어센터 시청각실	반란! 반축제는 11.3을 기억합니다! 일시 : 2013. 11. 7(목) 16:00 ~ 장소 : 서면 태화함 프로그램 : 학생의 날 부마항쟁 홍보물 전시 및 음료나눔
경남 사천	전북 익산	전북 전주	충북
제5회 사천청소년학생독립기념 한마당잔치 일시 : 2013. 11. 2(토) 16:00 ~ 장소 : 사천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 동아리 공연 및 발표	84회 학생독립운동의 날 기념 '제15회 익산청소년문화축제' 일시 : 2013. 11. 2(토) 17:30 ~ 21:00 장소 : 송리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 노래, 댄스, 영상 대회	2013년 학생의 날 기념 '제14회 청소년문화축제' 일시 : 2013. 11. 2(토) 08:00 ~ 13:00 장소 : 서신동 전주천 야외무대 프로그램 : 그룹사운드와 댄스 경연 대회 전주천 마라톤대회	충북학생의 날축제 '학생, 그 존재로 우뚝서다' 일시 : 2013. 11. 2(토) 15:00 ~ 18:00 장소 : 무심천 롤러스케이팅장

학생의 날, 그리고 참여와 저항

저항,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라고, 과학 시간에 전기를 배울 때에나 쓸 것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저항이라는 말은 생소하다. 별 다른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는 그다지 어색하진 않지만, 부당한 힘에 맞서 싸운다는 저항의 원래 뜻을 되새겨보면 무언가 어색한 단어이기만 하다. 무언가 불순해 보이기도 한다. 나도 얼마 전까진 그렇게 생각했다. 굳이 저항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았고, 그렇기에 저항은 내 삶과는 동떨어진 생소한 말이었다. 저항이라면 일제시대 광주의 그 학생들 처럼 거창한 대의가 있어야 저항인 것 같았다.

하지만 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고등학교생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학생으로서 학교에 다니며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를 많이 목격하고 겪어왔다. 작게는 두발규제, 체벌과 폭언, 어디에 쓰는지 몰랐던 학생회 기금, 휴대폰 규제가 있었고, 크게는 여러 교사들의 권위적 태도, 정해진 길을 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입시제도, 줄 세우는 시험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이 학교에 있었다.

그럴 때마다 모두에 대해서는 아닐지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바꾸려고 노력했다. 말하자면 학교의 문제에 대해 참여를 한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니 별 것 같지 않

아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되었든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참여 자체는 꽤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다. 지금이야 시간이 좀 지났기도 하니 편하게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 육과 협박을 들어가며 두발 자유와 학생인권을 외칠 당시에는 겁이 좀 났었다.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학생들의 참여는 권위적인 교사나 학교 분위기에 억눌려 결국에는 주장을 다 펴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과의 의견 차이로 좌절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참여 하나하나 자체가 모두 의미 있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결국에 참여는 부조리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젠 좀 아닌 것 같으니 바꾸자며 저항을 하는 것이다. 저항이란 거창한 게 아니다.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곧 현실에 대한 저항이다.

어떻게 보면 80여 년 전의 광주 학생만큼 지금의 학생도 숨 막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렵고 힘이 나지 않고 낯설어도, 학생 한명 한명의 거창하진 않아도 실천할 수 있는 만큼의 참여가 모여, 지금 학생을 억압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이 되지 않을까. 80여 년 전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제의 억압에 맞선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처럼, 그렇기에 같이 공감하고, 바꿔가기 위한 작은 참여, 저항을 이뤄갔으면 좋겠다.

“저항이란 거창한 게 아니다.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곧 현실에 대한 저항이다.”



서준영

중학생 때 학교에 엿을 먹고선 고등학교는 혁신학교에 진학했지만, 별반 다를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이영주

교육은 학생의 성장을 돕는 일인데, 왜 학교는 학생의 성장을 돕지 못할까? 강요되는 학습은 지식의 늘 뿐이지만, 주체적 학습에서는 인간이 성장한다. 요즘, 그 답을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협력에서 찾고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레미제라블의 소년 혁명가 '가브로쉬'

아직도 학교에서는, 큰 결단을 하지 않고는 "학생인권"을 말할 수 없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까지 바라지도 않고, 문제를 문제라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갖기도 힘들다. (이건,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흥길동도 아니고...ㅠ.ㅠ) 그래서, 영화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10살의 소년 혁명가 [가브로쉬]는 존재 자체가 충격이다.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자, 자기 생각과 판단, 자율적인 선택이 불가능한 생명체이다. 그래서 보수언론은 특하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청소년들에게 누구에게 배후조종 당했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곤 한다.

18세기 말 등장해서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학교는, 어른과 격리되어 '학생'이 인생을 배우는 공간이다. '청소년'들은 '학생'이 되어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길들여진 어른이 되어 사회로

나온다.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는 어른들. 촛불집회에 나온 청소년은 무조건 부모에게 끌려나왔다고 생각하는 언론. 청소년과 어른은 애초에 종이 다르다고, 다른 생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길들여진 사회의 길들여진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길들여지지 않을까봐 전전긍긍 걱정을 한다.

오늘의 삶을 인간적이고
인권적으로 만들자.
오늘에 참여하고, 내일을 위해 저항하자!

오늘과 오늘이 모여 내 삶이 만들어진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오늘을 저당 잡힌 '미래의 주인'이지만, 가브로쉬는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사는 혁명가다.

이제,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도 오늘의 주인으로,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삶을 인간적이고 인권적으로 만들자. 오늘에 참여하고, 내일을 위해 저항하자!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가브로쉬]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힘.

2013 여러분의 학교는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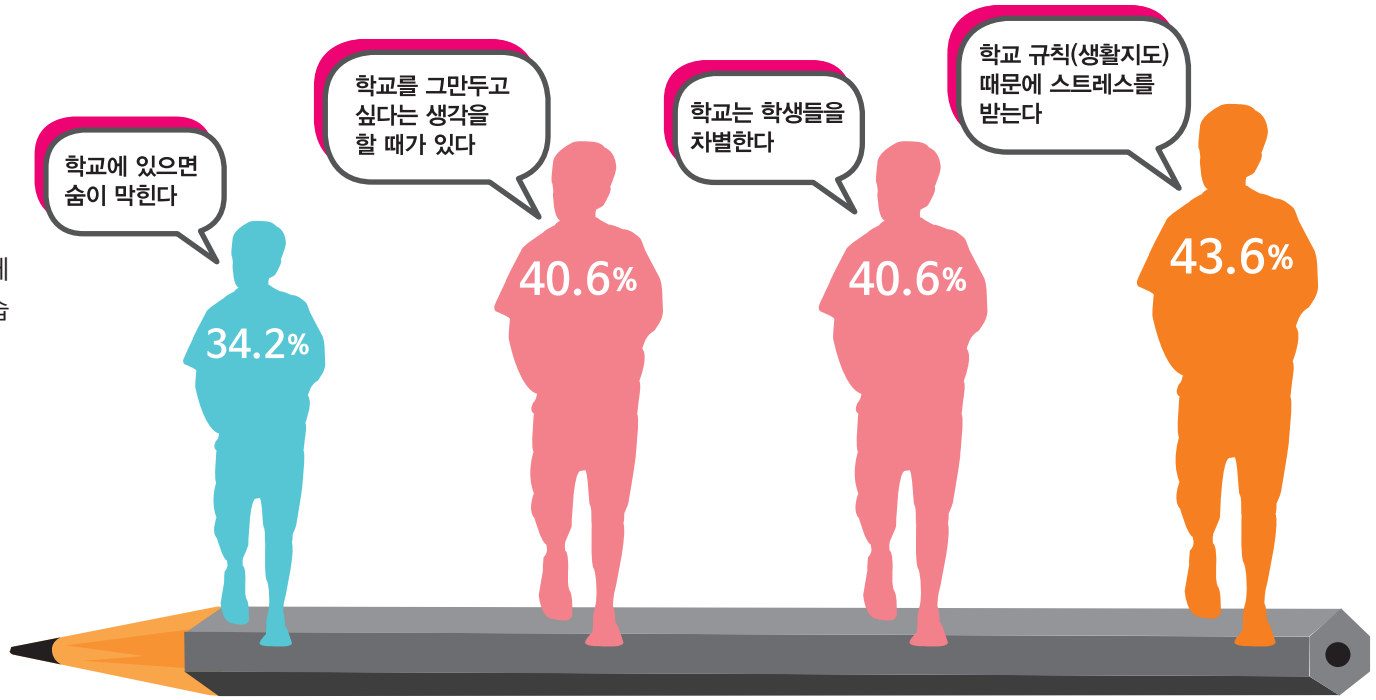
INFOGRAPHIC

학생인권은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게다가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학생들은 학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학교는 다닐만한 곳일까? 억압과 규제로부터는 자유로울까? 함께 학교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료: 「전국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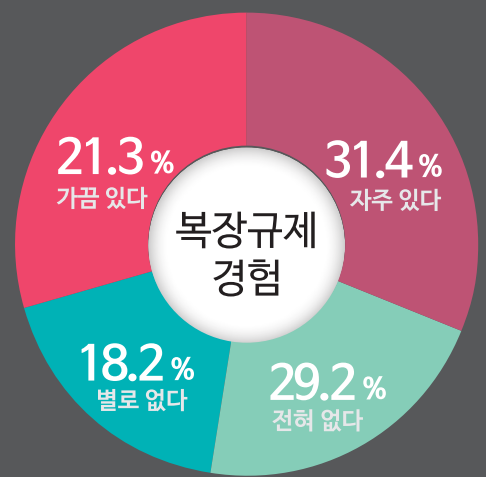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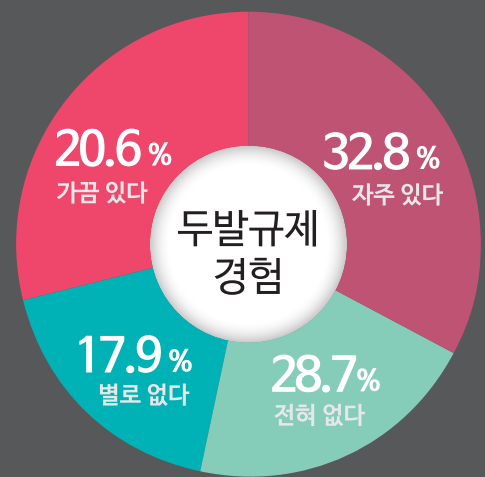
학교는 과연 학생을 위한 곳일까요? 학교에서 별로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조사기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조사기간 2013년 8월 26일~9월 4일
응답자수 2921명 (총 81개교)
표본오차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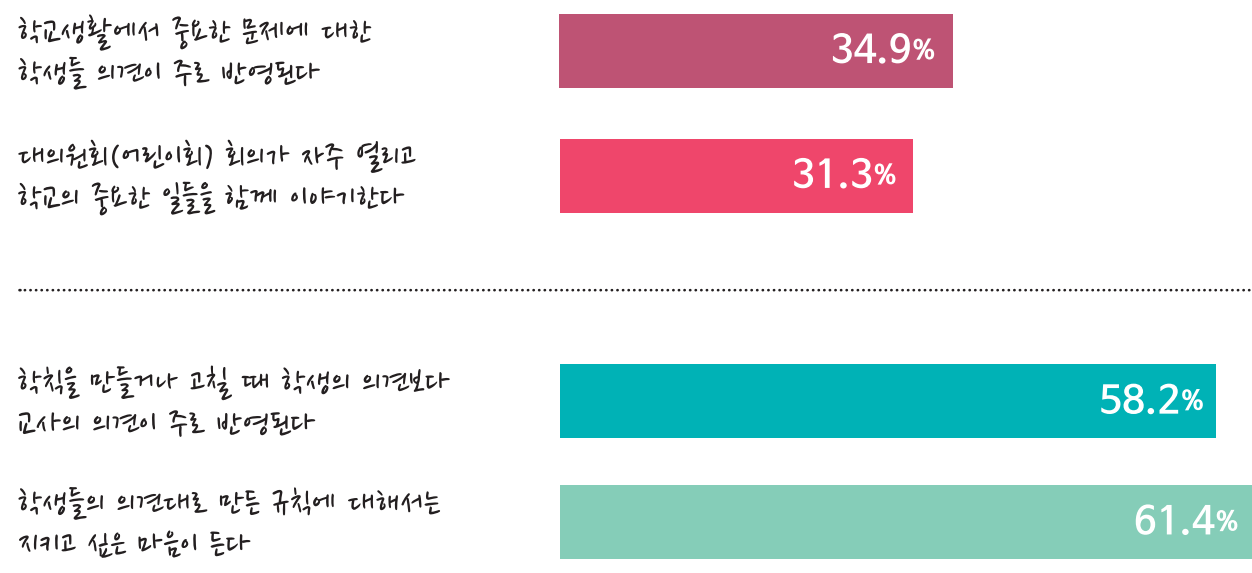
두발/복장규제 경험

자기 머리카락에 대한 자유, 옷에 대한 자유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아주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전체 주의적인 규제로 똑같은 머리, 똑같은 옷 속에 갇혀 지냅니다.



학생자치권 실태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개 그럴 기회조차 잘 가지지 못합니다. 학교는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국가나 왕국인가요?



학생인권, 불편한 진실?

공현

고등학교 때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문제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20대 중반이 되도록 청소년운동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인권이란 말은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거기에는 뭔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따라붙는 일이 많다. 학생인권이 무서운 것인 양 보도하는 언론도 있다. 하지만 사실 학생인권은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무섭지도 않다. 그저 학생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이 있다는 얘기일 뿐이다.

만일 날이 쌀쌀해졌는데 정부에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 국민들은 10월까지의 외투를 입지 마라."라고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항의가 빗발칠 것이고,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학생들에게 언제부터 외투를 입어도 되는지, 학교가 기간을 지정해준다. 추위를 많이 타서 외투를 입었다간 벌을 받는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서 사람들이 평소엔 권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겪는 일들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것이었다면, 즉 불편한 진실이 따로 있었다면 어떻게, 학생인권은 바로 그런 '불편한 진실'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 중에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다. 예컨대, 외국에는 두발규제도 없고 아예 교복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한국은 두발규제가 있고 교복이 있는 것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버려서, 두발복장이 자유화되면 무슨 큰 일이 날 거라고 호들갑을 떨곤 한다. 학생도 당연히 자기 머리카락과 옷에 대해 결정할 자유가



있는데도 말이다. 현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발 떨어져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보자.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학생에게는 '학생다움'이라는 것이 사람다움, 인권보다도 앞서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다들 인권에 대해 잘 몰랐고, 자기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남의 인권을 침해해도 '원래 그런 것'이려니, 그냥 넘어가곤 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좀 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에서부터 노력하는 것이 학생인권의 의미이다. 사람이려면 누구나,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이어서도, 소수자여서도 차별 없이 인권이 있다는 것이 학생 인권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다. 따라서 학생인권은 교육의 중요한 원리이자 알맹이이기도 하다.

과거 2009년에도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실태에 대해 중고등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는 약 90%의 중고등 학생들이 두발규제를 당하고 있다고 했고, 차별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1주일에 1번 이상 당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올해 조사한 것에 따르면 두발규제나 차별을 당한다는 학생은 제법 줄었다. 경기도, 서울, 광주, 전북 등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일, 그리고 그간 학생들이 자기 인권을 주장해온 것 덕분일까? 이런 변화는 희망적인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인권 침해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도 사람이라는 것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 확실한 상식이 되지 못한 것 같다. 학생인권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까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듯싶다.

종교사립학교에 공부시간 공습니다

위영서

프라다를 입는 악마가 되려고 예일디자인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재단이 기독교라 기독교까지 믿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 게다가 사설반이라는 우열반도 있네요. 전 샤넬을 입는 천사가 되어야 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종교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위영서라고 합니다. 3년 전 디자이너라는 부푼 꿈을 안고 디자인특성학교 등학교인 지금의 저희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기독교신자가 아닌 저에게는 기독교학교에 진학하는 게 조금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 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매주 학생들을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종교수업까지 수강하게 했습니다. 믿지 않는 신에게 억지로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사고 싶지 않

은 성경책을 사야하는 학교는 지옥 같았습니다. 예배가 있는 날엔 학교 가는 게 늘 두려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학교의 종교 강요가 부당하다는 건의를 하면 "선택해서 온 학교인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 혼자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 물론 제가 다니는 학교는 제가 스스로 원서를 써서 온 학교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저의 종교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나요?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종교를 믿어야 한다는 건 이상한 것 아닌가요? 저희 학교가 있는 서울은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고 종교수업에 대한 대체수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뿐만이 아닌 헌법 제2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학교 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종교사립학교에서 저희 학교와 같은 종교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종교사립학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학생들의 기본적인 선택권도 존중받지 못한 채 학교를 다녀야 하나요? 학교가 '강요의 장'이 아닌 정말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묻습니다.

학생인권지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 제정
경기 광주 전북
- 불발
경남 전남 강원
- 유사법률
인천 제주
- 위기
서울
- 없음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충남 경북 충북

서울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서 좋아했는데, 중간에 교육감 바뀌니 교육청에선 학생인권조례 수정한다고 간보고 있고, 그 외중에 우리 학교는 신고해봐 하면서 대놓고 비아냥 중인 상황입니다. 학생은 고통ㅠㅠ

인천

얼마 전에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하는 청소년시국선언 참여했다고 학교에서 협박하고 꼬치꼬치 캐물고 협박함. 인천학생들은 참여도 마음대로 못함. 학생인권의 불모지 인천.

경기

걸로 학생인권조례 잘 지키는 척만 하고 두발만 덜 잡는듯? 두발자유가 조금이나마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가

충남

경기, 광주, 전북, 서울 학생만 사람이 아니다. 충남 학생도 사람! 전국 모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라!

대전

학생인권조례 만든단 얘기도 없고, 만들자는 얘기도 없고, 답도 없고.

광주

우리 학교는 광주학생인권조례 그나마 잘 지키는 학교. 그런데 선생님들은 "우리가 이만큼 풀어주니까 너네가 잘 해야겠지? 안 그러면 옆 학교처럼 할거야" 인권이 선생님 마음대로 보장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인심 돈는 빛고을.

제주

흔히 삼다도라고 하는데, 돌, 바람, 여자보다 인권침해가 더 많아요.

전북

작년에 겨우겨우 학생인권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아직 학교는 바뀐 게 딱히 없는 듯.

전남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만든다더니 실ㅋ중ㅋ

강원

학생인권에 관심있고 학생인권운동을 해보고 싶은데 사람이 잘 모이질 않는다. 학생인권조례의 돌풍이 강원도는 빗겨간게 아닌가 싶다.

충북

충북에도 학생인권조례 만들자고 주민발의로 만들었는데 교육청에서 주민발의 po각하wer! 으아아

경북

여기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더라고요. 시험문제 틀렸다고 수백 대 맞고 그럼.

대구

예전에 학생이 한 명 자살 했을 때 우동기 대구교육감님께서는 "노무현 따라한 거다. 다른 데 놔두고 왜 대구만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뭘 더 바래.

울산

일제고사 볼 때 감독 보던 선생님이 슬쩍 나가서 뭔가 했더니 알아서 컨닝해서 하라는 거였음. 일제고사 성적 올리려고 참 별 짓을 다한다.

부산

체벌금지?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작년부터 전국 체벌금지 되었다던데 부산은 여전히 대부분 학교에서 체벌이 만연해요. 두발규제도, 학생인권조례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발 졸업하기 전에 만들어 줘요.

경남

두발규제는 기본, 국경일이고 공휴일이고 죄다 학교에 나와야 한다. 학교를 바꾸고 싶은데 다들 이런 일이 있어도 부글부글하다가 그냥 식어버리니 슬프다. 으아아 학교를 뒤엎고 싶어! 인간들이 나에게 힘을 줘!

나에게 연애란, 다



달짝지근한 연애를 기다리는 지누

성소수자 학생인 나에게 연애란, '벽장'이다

혹시 학교에 누군가와 사귀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는가? 난 중학교 재학시절 내 애인과 그러한 소문이 난 적이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뒷담을 갖고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세상에 얼마나 좋은 남자들이 많은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당시 우리

말고도 다른 학교 남자애와 사귀는 소문이 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는 아직 어리고 좋은 것들만 보아야 할 시기라며 건전한 교제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른 남자와의 교제를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웃길 수가 없었다. 남자와 연애를 하면 손만 잡고 다녀야 하고 여자와 연애하면 남자와 연애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손가락질을, 남자와 연애하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 벽장 안에 몸을 가두고 있거나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을 감수하고 문을 여는 것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



결혼을 다섯 번 하고 싶은 김금물

커플학생인 나에게 연애란, '주거' 다

나는 앞으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다. 이런 나에게 연애란 '잘하기 위한 모든 의무감과 책임감의 홍수인 생활 속에서 순전히 내가 좋아서 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행동양식'이다.

연애, 이 단 하나의 것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휴식처이자 내 이름 석 자 책임질 생각에 이리저리 치이며 사는 세상 속에서의 도피처로서 내 정신건강을 위한 휴식이 되어주는 어떤 주거와 같은 것이다.

이미 누군가라는 주거지에 마음을 누이며 얻는 만족감에 길들여진 나로서 그토록 순수한 행동의 갈구를 쉽게 멈추지 못할 성 싶다. 내가 수능이란 짐을 진 고3 수험생이든, 명문대학의 입학학을 기원하는 중산층 부모님의 딸이든, 3학년 8반의 회장이든 말이다.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루나켓

솔로 학생인 나에게 연애란, '그림의 떡'이다.

저는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6시 반에 일어나서 빠르면 5시, 늦으면 10시에 집에 오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교에서 자습을 하는 저의 일상의 대부분은 학교와 학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제가 다니는 학교는 남고이고 학원에도

여자 재원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오고 가면서 보는 근처 학교의 여학생들이 있지만 가까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생각해 보면 제가 남은 10대 기간에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저 연애를 못하는 자신을 한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연애를 하게 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을지가 먼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애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피임도 안하면서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 또래지도자 동아리>

피임 없는 성관계는 자칫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관계를 하면 언제라도 임신이 될 수 있으니 원치 않는다면 피임을 해야 한다! 성관계 후 늘 불안감에 휩싸여 네이버 지식인에 매일 같이 '저 임신한 거 아닐까요?', '여지친구가 임신한 거 같아요.'라는 질문을 하고, '절대 아닙니다.' 라는 답변이 달려도 혹시 모를 0.000000001%의 초조함으로 한 달에 한번 만날 수 있는 '피만 기다리겠는가? 이제는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피임법을 골라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피임의 종류로는 먹는 피임약(경구 피임약), 루프, 이식형, 붙이는 피임약, 살정제, 콘돔이 있다. 이 중 먹는 피임약과 콘돔은 삽대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이 둘을 위주로 설명하겠다. 일단 먹는 피임약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되어 있고 난소에서 난자가 성숙되어 배란되지 않도록 하며 자궁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하여 정자가 자궁내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약국에서 구입가

능(10,000원~15,000원)하며, 월경이 시작되는 첫 날 먹기 시작한다. 하루에 1알, 매일 비슷한 시기에 먹으며 한 패키지에 들어있는 21알을 먹고 7일간 쉬면 된다. 먹는 피임약은 몸에 전혀 해롭지 않다. 우리가 자주 먹는 감기약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먹었는데 몸이 묵직하다면 다른 회사 제품을 먹어보자. 그렇게 나에게 맞는 약을 선택하면 된다.

콘돔은 음경을 고무막으로 덮어 씌어 정자가 여성의 질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지하철, 약국, 온라인매장, 오프라인매장, 편의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구매가능(개당 500원~5,000원)하다. 콘돔 사용 시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하고, 음경이 발기된 후 질 입구에 닿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콘돔은 성병 및 에이즈를 막아주는 유일한 피임법이라고 하니 권장, 또 권장한다.

흔히 알고 있는 질외사정법과 주기법은 피임법이 아니다. 질외사정법은 남자의 절제력을 온전히 믿는 방법인데, 남자는 사정하기 전 쿠퍼액이라는 분비물이 나온다. 여기에는 정자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임신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주기법은 여성의 월경주기가 일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좋지 않을 경우엔 갑자기 월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성의 몸은 365일 임신가능 한 몸이라 하겠다. 혹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피임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실천해온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만 두는 게 좋겠다.

이 외 '성'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www.ahacenter.kr)에 방문하여 사이버 상담에 글을 올리거나 02-2676-1318로 전화하면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녀는 청소하는녀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될 때는 청소할 때뿐!
 왜 학생은 청소할 때'만' 학교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치 찾아 삼만리

전국 곳곳에서 학생들이 진짜 학교의 주인이 되기 위해 행동하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자치를 찾아 ~



경상북도 영덕

‘교복을 거부하는’
영해중학교 1학년 김규리 씨

Q.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저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정한 귀고리·매니큐어 금지나 교복 착용 등에 반대해서 입학할 때부터 사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학교에서 1학기에는 무시하는 건지 이야기도 안하더니, 2학기 들어서 선생님들도 바뀌면서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 제대로 된 대화는 아니었어요. 선드위원회를 열어서 교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더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깐 제 생각은 집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막더라구요.

Q. “교복 거부” 활동을 하고 계신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중학교에 가니까 교복을 입는 것이나 자신을 꾸미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 통제를 했어요. 교복을 입지 말지, 자신을 꾸밀지 말지는 학생 스스로 선택이 가능해요.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선택을 단련하는 시기인데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통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Q. 학교에서 징계를 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A. 안 받아요 ㅎㅎ

Q. 이런 활동을 안 좋게 생각하는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한 마디 하자면?

A.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깐, 그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말하는 게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일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자신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울특별시

‘계획부터 활동까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선사고등학교 학생회

Q. 선사고 학생회 소개 좀 해주세요.

A. 선사고 학생회는 각 부서별로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구성되는데,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면접을 봐서 학생회를 구성해요. 또, 학교 행사를 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요. 선사고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급회의와 건의함을 활성화시켰고, 학생회 활동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서 학생회 활동을 잘 때 참고해요.

Q.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A. 민주적인 학교는 소통이 가능한 학교예요. 내 뜻을 말하고 실현할 수 있는 학교인 거죠.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예요. 이야기를 듣는 건 각 주체들이 서로를 하나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는 학교의 각 주체들이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Q. 학생자치를 우려하시는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A. 학생은 주체적인 존재고, 그 힘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어요. 그 힘을 자율적으로 행동하면서 발전해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생자치가 활발해지게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학생이 학생자치의 맛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광주광역시

‘학교소식이 아닌 학생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광주전자공고 학생회 신문부

Q. 광주전자공고 학생신문 ‘가온누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광주전자공고 학생신문 ‘가온누리’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문이에요. 신문부는 학교 생활의 불편사항이나 편의사항 등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신문에 실어 학교 발전에 동참하려고 하며, 소수라서 묻힐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다수의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신문을 만들려고 해요.

Q. 학교에서 신문 내용에 관해서 간섭하지는 않나요?

A.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 학교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쓰는 데, 거기에 대해 선생님들이 인상을 찌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문을 발간할 때 선생님께 먼저 기사를 보여드리는데, 기사에 대해 도와주시는 것 외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바뀌어 발행하라는 이야기를 매번 들어요. 학생신문이고, 공정성에 위배된다면 수정을 해야겠지만 선생님이 신문에 개입하는 건 학생신문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섭섭하기도 해요.

Q. 학생자치언론들이 더 많은 학교들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A. 학생들이 학교 일에 대해 모른 척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억울한 이야기나 의견이 있어도 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해요. 학생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무시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열린 마음도 역시 필요하죠. 학생과 선생님의 ‘관심과 열린 마음’이 학생자치언론 활성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게임은 짱이다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또한 많이 한다. '스타크래프트'에서부터 'LOL'까지, '메이플스토리'에서부터 '던전앤파이터'까지, '팀 포트리스2'에서부터 'GTA5'까지, '장기'에서 '테트리스'까지,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게임을 해 왔다.

나는 아직 17살이다. 나이가 좀 찬 것 같지만 '셋다운제'의 적용을 받는다. 12시만 되면 게임이 꺼져서 아는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그럭저럭 게임을 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 갈수록 셋다운제로부터는 벗어나는 듯해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게임할 시간이 줄고, 공부는 뒷전이라며 잔소리는 늘어만 간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게임 자체가 '철없는 것'으로 여겨져 게임하는 어른도 고운 시선을 받지는 못하지만, 특히 청소년은 공부와 같은 문제로 게임을 해도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게임을 할 여유도 부족하다. 다들 게임이 청소년을 중독시켜 성적을 곤두박질치게 하고 탈선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이 수면권을 침해한다지만 졸린 눈꺼풀을 안고 잠을 참으며 게임을 해갈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을 못 잘 때가 많다. 그리고 선택지가 게임뿐인 경우도 있다. 바쁜 학교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선택지는 게임이나 TV정도다. 그 뿐인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든다. 뭘 해도 돈이 드는 여가생활에서 그나마 값싼 선택지는 게임이다.

진짜로 청소년을 위한다면, 게임만 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청소년을 위한답시고 수면권 어쩌니 하며 '셋다운제'를 시행하기 보다는 여가를 누릴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 아자 같은 것도 없애고, 좋은 대학 가라는 압박을 그만 줘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합주실이라든지, 휴카페라든지, 그런 문화 시설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나는 '청소년에게 게임보다 건전한 취미를 찾게 해주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생각에도 반대한다. 게임은 재미있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재미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게임이나 옛날의 딱지치기나 공기놀이나 다를 게 무얼까. 게임이 유해하다는 건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제대로 쉬고 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더 많은 청소년에게 더 많은 놀 권리를!

익명의 열일곱



그 게임 제목이 뭔가요?

게임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질문 : 게임 제목 묻기 운동



사회에서는 '청소년이 게임하는 것'을 참 못마땅해 한다. 온갖 미디어에서 왕따, 정서불안, 폭력성 증가, 청소년 범죄, 수면부족, 학력저하 등등 그 밖의 무수한 청소년 문제가 게임중독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2년 전인 2011년 11월 국가에서 심야에 강제로 게임을 꺼 버리는 '셋다운제'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를 비롯해 시간 선택제, 쿨링 오프제 등의 정책들을 통해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로 세로 재어 보지도 않고 '만약의 근원은 게임'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회 풍조를 비판하는 캠페인이 있다. 게임 제목 물어보기 캠페인 이 그것이다. 주위에서, 인터넷 게시글에서 "게임이 문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게임 제목이 뭔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게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게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떤 게임의 어떤 부분이 나쁘다고, 혹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게임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조건 폭력적이고, 퇴폐적이거나 흥미위주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 캠페인을 처음 기획하고 제안한 한 게임 개발자는 게임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감정적인 부정적 시선이 쏟아지는 이유는 사회가 게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게임은 획일적인 하나의 내용과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나 '사람'처럼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묶는 말이기 때문에 "게임은 좋다." 혹은 "게임은 나쁘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캠페인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게임은 좋은 것 같다."고 말하는 대신, 질문을 던진다. 그 게임 제목이 뭔가요?

'게임제목묻기운동'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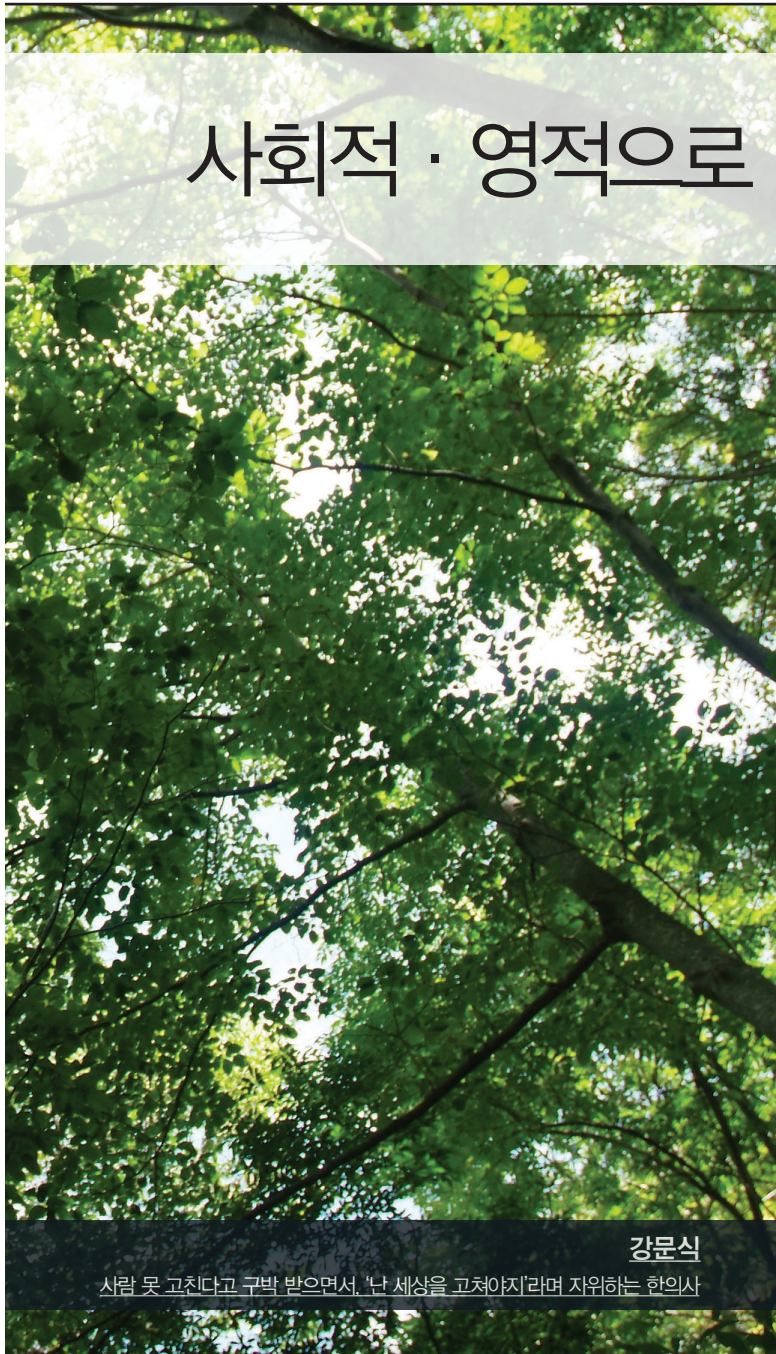
* 페이스북 facebook.com/askgametitle

* 트위터 twitter.com/AskGameTitle

왕스타킹 사람들 -기선-

제공/ 한겨레21 제982호





사회적 ·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하여

입시노동'이라고 회자될 정도로 대학 입학 전 학생들이 받는 교육은 가혹하고 과중하다. 해가 갈수록 입시교육에 내몰리는 연령은 낮아지고 있고, 이미 유치원에서도 학군을 따지며 입시의 전초전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이렇다 보니 초등학교도 학원 4-5개 다니는 경우가 예사고, 당연히 운동시간은 부족하며 수면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고등학생의 평균수면 시간은 6.2시간으로 권고하는 적정수면시간인 8.5시간에 크게 못 미친다.

너무 당연해서 누구나 아는 이야기

수면과 운동이 성장에 중요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져 별로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아이러니한 건 '몸'도 하나의 스펙이 되어 사회진출경쟁의 척도 중 하나가 된 시대에, 학생들은 입시노동에 더해 '성장'에도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성장을 위해 학원을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니 요즘 병원에는 성장호르몬을 처방받기 위해 찾는 10대 청소년이 늘고 있다. 온갖 성장클리닉이 유행하며 성장 전문 한의원도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다. 보 쌀아 4대강 막아놓고 수질이 안 좋아지니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수질 개선시키겠다는 삽질과 비슷하달 수밖에.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스펙들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또 서로 이어진다. 입시노동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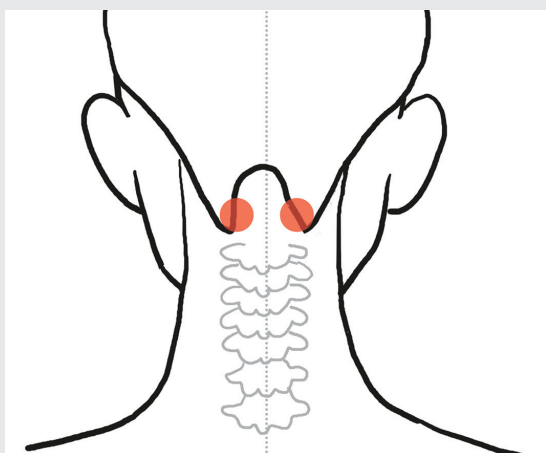
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성장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2010년 서울시 고등학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계고 학생의 키가 가장 작았고 자사고 · 외국어고 학생이 가장 컸다. 입시경쟁은 자사고 · 외국어고에서 더 심할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전문계고 재학생이 가계소득이 더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성적이 좋으면 키도 크다는 지독한 아이러니.

WHO는 건강을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경쟁의 한 종목이 된 사회에서 '사회적, '영적' 건강을 이야기하는 게 참 아득하게 느껴진다. 해마다 2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여전히 수능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행사이고, 서연고서성한 운운하며 인간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

한의학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로, 세상을 대우주로 부르는데, 두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대우주가 지옥이면 소우주도 지옥을 면할 수 없다. 나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의 발전이 아니라, 다른 이의 등급저하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사회적 ·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 내가 건강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 다른 이의 낙오와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 사회적 · 영적 건강이다. 입시체제의 변혁은 온건강을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강문식
사람 못 고친다고 구박 받으면서, '난 세상을 고쳐야지'라며 자위하는 한의사

스트레스에 찌든 학생들을 위한 Tip! 천추혈 마사지



천추혈은 목뒤에 목뼈와 머리뼈가 만나는 중간지점에 양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할자리입니다. 천추혈을 엄지손가락을 지그시 눌러주면 두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어 두통과 피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천추혈을 딱 찾기 어려우니 뒤통수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곳을 문질러 주는 정도라도 해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학교, 학원, 집에서 온갖 잔소리에 찌든 당신의 몸에 힐링을!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건강 체크리스트!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에 강조를 하죠.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럼 정말 학생들의 환경은, 당신의 환경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고 있나요? 체크리스트로 점검해보세요!

1	학교급식은 건강한 재료로, 맛있고 깨끗하게 만들어진다.	<input type="checkbox"/>
2	학교 화장실은 잘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관리 된다.	<input type="checkbox"/>
3	쾌적한 환경을 위한 히터 등의 냉·난방이 잘 이루어진다.	<input type="checkbox"/>
4	학교보건실에서는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치료를 받거나 쉴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5	아플 때 꼭 쉴 수 있는 생리결석, 질병결석이 부담 없이 보장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6	체벌, 기합, 욕설, 막말 등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7	학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학생휴게실이 마련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8	쉬는시간, 점심시간은 잘 보장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9	학교, 학원 스케줄이 청소년 권장수면시간인 8시간 이상 잘 수 있도록 무리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10	운동, 게임, 만화, 음악 등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활동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10개 : 기본은 갖춰진 환경!
 7~9개 : 아쉬운 환경! 좀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4~6개 : 위험한 환경! 개선이 시급해요!
 0~3개 :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도망쳐요!

교육이슈



전교조 법외노조화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 전교조에게 노조로서 보장해야 하는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였다. 전교조는 공장 기자회견을 통해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기본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안

6월 20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탈학교 청소년들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기록을 한데 모을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인권사회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안을 근거로 모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본인의 동의 절차가 없으며, 모인 정보가 '문제 학생 관리'라는 편견 어린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교조 공격, 무한 경쟁 탈출하고픈 학생들 배신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해 오던 전교조를 위협하려는 속셈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도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격 이야기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당한 교사들을 전교조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전교조에 노조 설립 신고를 취소시키겠다고 했다는 기사를 봤다. 웬일로 한동안 잠잠하다 했는데, 역시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상황이 별로 달갑지는 않다. 딱 봐도 박근혜 정부가 되지도 않는 명분을 들이밀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

고 견제해 오던 전교조를 위협하려는 속셈인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가 이번 한 번만 꼬투리를 잡고 끝날 리 없다. 적당히 넘어가다 보면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전교조를 공격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을 비판하고 바꾸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걸고넘어질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일제고사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정부가 마음대로 교육 정책을 주무르면 대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박

히른 (학생인권이 학교의 담을 넘기를 바라는 중학생)

근해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좋게 봐줄 수가 없는 이유다. 이번 전교조 사태는 비단 교사들만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일인 것으로 보인다. 나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대하는 태도로부터, 앞으로 정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짐작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교육 정책을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나쁜 교육이 펼쳐질 가능성을 걱정하게 된다. 여러 국제기구들이 전교조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의견을 보냈다. 한국 정부가 그럼에도 인권을 무시하고, 또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로 탄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내 마음이, 배신당하지 않길 바란다.

경쟁교육의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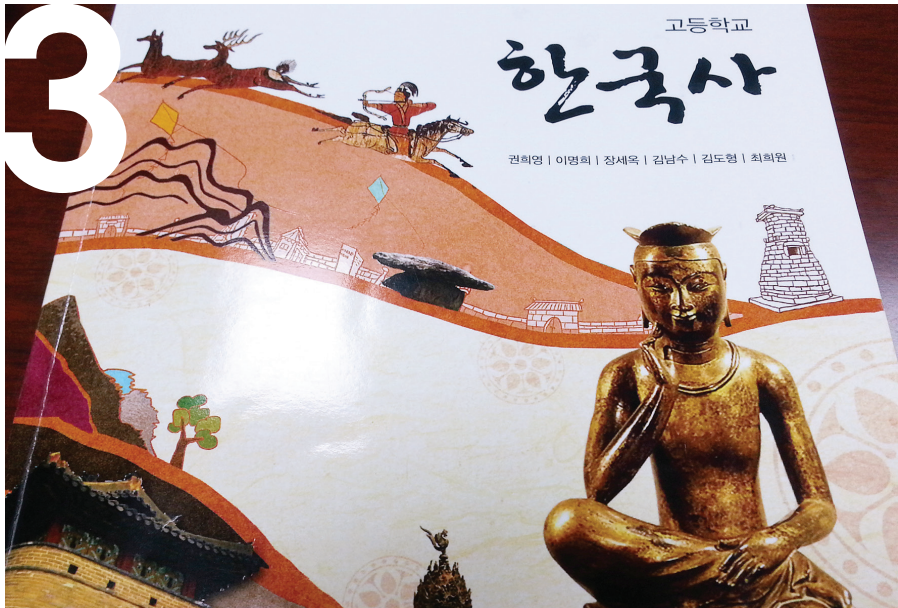
익명의 고등학생

대학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 어느 고등학교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하겠지만, 내가 다니는 학교는 특목고다보니 특히 정도가 심하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도 입시생이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가끔은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고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중 간에는 예비 고3들을 불러 이듬해 "고3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나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경험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3학년 부장선생님은 선생님들에게 순종해야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남기고, 그 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서울대 종교학과에 진학한 선배를 불러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했다. 그 선배가 딱히 종교학과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은 그다지 중요치 않은 듯했다. 굳이 전교생을 모아놓고 하필 그런 이야기를 시킨 의도를 생각하니 좀 씁쓸했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거의 일 년이 지

난 지금까지도 똑똑히 기억에 남는 말은 어떤 학생이 인터넷에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그런 놈은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했던 거였다. 그 말 자체보다도 거기에 동조하는 분위기인 학생들이 무서웠고, 옆에서 웃고 계신 선생님들이 무서웠다. 참고로 그 글은 "기대를 많이 하고 학교에 진학했는데 선생님들 수업의 질이 기대보다는 못 미처서 실망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이번 시험 성적이 떨어진 걸 보니 결국 내가 문제인 것 같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이었다. 3년을 같이 지낸 친구들 때문이라도 나는 우리 학교를 좋아한다. 신기할 정도로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인격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친구들도 꽤 있고, 재는 어디서 뭘 하든 잘하겠구나, 싶은 친구들도 많다. 3년 동안 이런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였다. 다만, 3년 동안 이 미친 경쟁교육이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는 것도 너무나 잘 보았다. 대학을 가기 위해 선생님들에 대한 순종을 대놓고 강요하고, 인터넷에 글 좀 썼다고 처음 보는 선생님에게 죽일 놈으로 몰리는 학교에서 저항정신이나 표현의 자유 같은 민주적 가치가 실현가능할 리 없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입시 과정에서 이미 미래의 사회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길들여지는 듯했다. 효율성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고 순종적인,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우리 사회에서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고, 수익을 위해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입시경쟁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어서 아닐까. 사실 학생도, 선생님도, 학교도 잘못은 없다. 모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입시경쟁이 만들어 놓은 피해자이자 부산물일 뿐이다. 다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조차 막막한 이 입시경쟁은 이미 괴물이 되어 버린 건 아닐까. 언제까지 안일하게 방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 대 천 왕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교학사의 <한국의사> 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교과서는 위안부 문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도 4·3 사건 등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나치게 찬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를 지우거나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 목록에서 이 교과서를 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검정취소를 요구하는 등 해당 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폐기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농·어촌 지역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해, 2017년에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한 푼도 없었다. 2014년 예산안이 이후의 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열쇠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교육복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헛공약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가 없는 학교, <희망의 우리학교>를 만나다



지금의 학교를 보면, 교육이라는 사료를 생산해 학생이라는 가족에게 먹이는 하나의 공장에 비유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니 학교를 바꾸려면, 이런 공장식 사육의 구조를 뒤바꾸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해, <희망의 우리학교>를 방문했다. 다음은 <희망의 우리학교>의 학생인 정윤서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희망의 우리학교>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희망의 우리학교>는 입시경쟁교육으로 얼룩진 학교를 거부하고 학생이 만든 세계에서 아마도 최초인 것 같은? 학교이다. 2012년 2월 29일, 최훈민 씨가 교육부 앞에서 '죽음의 입시경쟁교육 중단 촉구 1인시위'를 한 것이 <희망의 우리학교> 만들기라는 수십 명의 모임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는 '죽음의 입시경쟁교육 중단 촉구 100인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다른 학생/청소년 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고, 사안에 따라 기자회견을 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업을 개설해 함께하는 학생 뿐 아니라 참여회원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학교나 교육청, 정부가 학생들이 배울 것을 정해 준다. 학생이 만든 학교인 <희망의 우리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정하나?

<희망의 우리학교>에는 교사가 없다. 대신 가르치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른다. 원가를 배우고 싶거나 배우면 좋지 않을까하는 말이 나왔을 때 다함께 논의를 해서 멘토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고 멘토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업을 제안해 오기도 한다.

학교처럼 정해진 운영방식이 없을 테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학교의 행정이나 운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보니 처음엔 좀 힘들었다. 주어진 양식도 분량도 없어 막막하기만 했지만 어느 정도 연습이 되니 이제는 좀 노련해진 것 같다. 지금은 이런 고민을 새로 올 학생들에게 전달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희망의 우리학교의 목표는 무엇인가. 희망의 우리학교 만들기는 개교에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며 진행되고 있다. 또, 희망의 우리학교만 희망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희망의 우리학교' -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신문을 보게 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희망의 우리학교 만들기 모임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위험요소들을 언급하며 '너무 이르다', '무리다'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희망의 우리학교는 개교한 뒤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딪히고 깨지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 신문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과감히 많은 것들에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희망의 우리학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사이트: www.urischool.org
*카페: cafe.naver.com/newurischool

사 대 천 왕



국정원정치개입의혹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뤄졌다. 국정원 직원의 ID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사이트 2곳에 정치, 사회 이슈 등과 관련된 글을 120여개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 후 3일만에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것이나 국정원 수사를 도려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낙마,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팀 배제 등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9월 27일 UN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며, 모든 정부는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들의 약 90%가 있는 우리나라는 "한국은 징병제이며 이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의를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결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며 찬성했다. 종교나 신념 등 여러 이유로 도저히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사람들을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외국엔 청소년 정치인도 있다?



안나 뤼어만
Anna Lührmann

- * 최연소 독일 연방의원 &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
- * 2002년 18살의 나이로 첫 당선
- * 2005년 재선 성공
- * 독일 연방의회 내 유럽연합 전문가
- * 10살부터 학교 학생회, 독일 녹색당 중앙위원, 청소년 녹색당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음.



주자네 그라프
Susanne Graf

- * 18세에 독일 '베를린주' 주의원 당선



마이클 세션스
Michael Sessions

- * 18세에 미국 '미시건주' '힐스데일시'의 시장으로 당선
- * 현역 시장을 제치고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됨.
- * 학업과 직무를 병행하며 시장을 감독하였음.

그런데 우린... 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나라!' 운동본부

트위터 twitter.com/naenoara
 페이스북 facebook.com/naenoara
 홈페이지 내나라.org

85th

학생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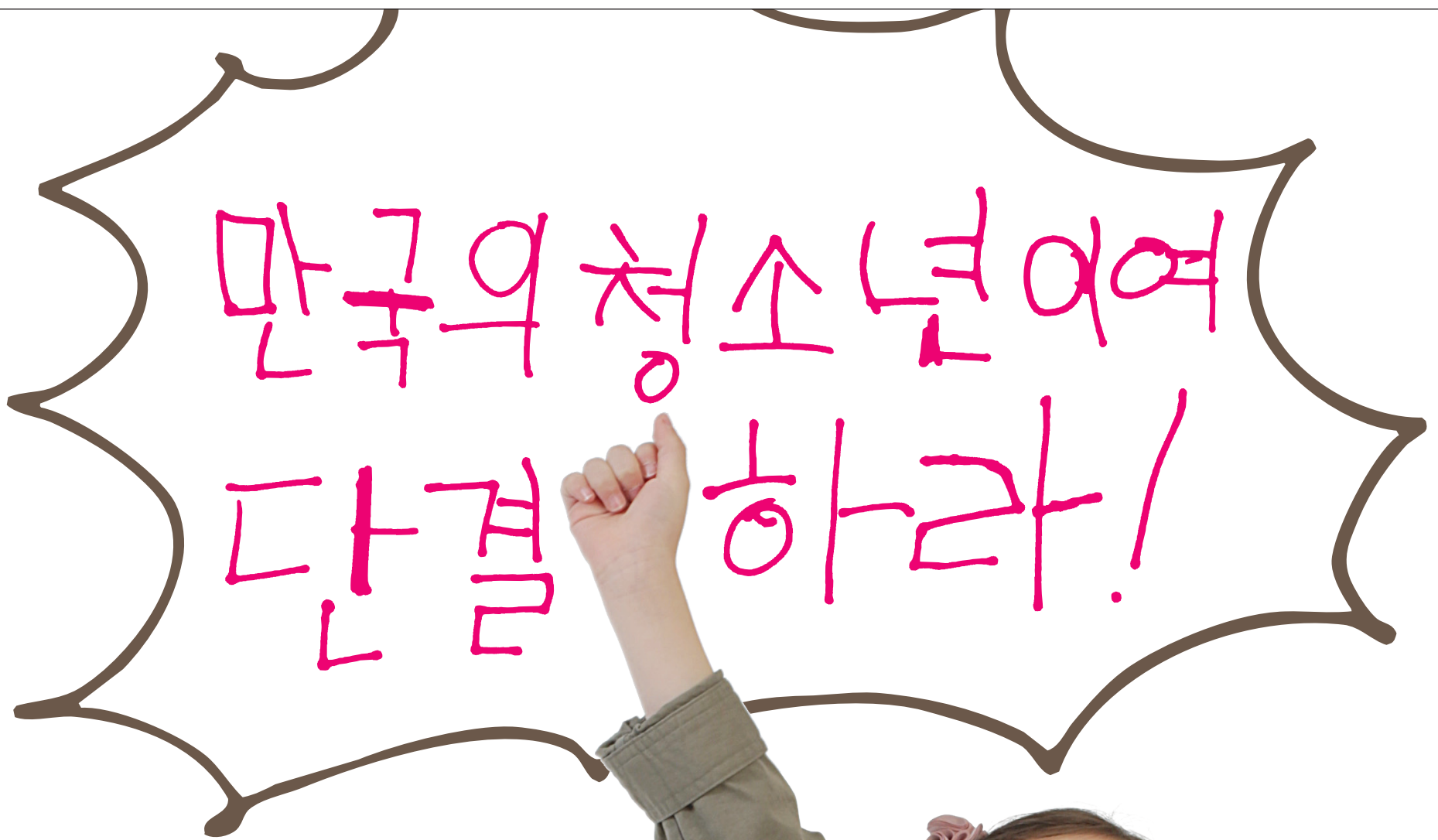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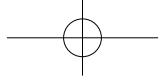
신문

퍼넛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퍼넛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도움 주신곳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편집디자인 이반스튜디오 02 742 3179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인권은 권리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 할 때 진짜 보장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답답한 학교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함께 해요

아수나로는 나이가 어리다고 누리지 못하는 짝사랑에 반대하며, 학교와 사회에서 학생, 청소년노동자, 성소수자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들의 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함께 지역모임을 만들어 서명운동, 집회, 스쿨어택 등 직접행동으로 학교와 사회에 변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아수나로와 함께 해요!

homepage	asunaro.or.kr
e-mail	asunaro@asunaro.or.kr
phone number	070.4228.1908
twitter	@onlyasunaro
facebook	fb.com/onlyasunaro

아수나로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활동을 위해 정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학생, 교사, 시민들의 후원으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후원자

